

전북의 당산입석과 남근석신앙 고 (全北의 堂山立石과 男根石信仰 考)

李 鐘 哲

(國立民俗博物館 研究員)

目 次

I. 여는 말	III. 맺는 말
II. 現地 報告	1. 堂山立石과 男根石 考
1. 堂山立石	2. 堂山信仰의 變遷과 機能
2. 堂山男根石	3. 堂山굿 考
	<參考文獻 및 圖版>

I. 여는 말

문화(文化)의 대격변기(大激變期)속에서 감성(感性)의 전통문화(傳統文化)는 이성(理性)과 논리(論理)로 무장된 현대(現代)·서구문화(西歐文化)에 밀려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가정(家庭)과 가족원(家族員)을 하나되게 엮어주던 어머니 할머니들의 “성주(城主) (城造))信仰”과 마을민(民)을 편케 하였던 “당산제(堂山祭)”도 예외(例外)가 될 수 없다. 약 1600여년간 한국인(韓國人)의 사상사(思想史)를 지배(支配)했던 왕실(王室)과 귀족중심(貴族中心)의 불교문화(佛敎文化) 형식논리(形式論理)와 지배층(支配層)의 철학(哲學)이었던 불교사상(佛敎思想) 교조적(敎條的)이고 배타적(排他的)인 주(主)님 신앙(信仰) 속에 전통신앙(傳統信仰)은 소멸(消滅)의 길을 걷고 있다.

건전(健全)한 정신문화(精神文化)가 뒷받침되지 않는 물질문화(物質文化)는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의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오늘의 한국문화(韓國文化)는 심각한 반성(反省)이 필요(必要)하다. 정신문화(精神文化)가 융성(隆盛)할 때 대수로(大水路) 대가람(大伽藍) 건설하고 산맥을 뚫고 과학기술문명(科學技術文明)을 일으켰다.

정신문화(精神文化)중에도 민중신앙(民衆信仰)은 한국인(韓國人)의 정신(精神), 사상(思想), 생활(生活)의 뿌리를 이루는 내용(內容)으로 문화(文化)와 인성(人性)(Culture and Personality)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민중신앙(民衆信仰)은 비과학(科學), 비합리(非合理), 비논리(非論理), 비합법(非合法)이라 매도(罵倒)되고 금사(禁祀)와 미신(未信)이라는 이방외국인(異邦外國人)의 인식(認識)에 근거(根據)하여 백안시(白眼視) 천시(賤視)되어 왔다. 세상(世上)에 어떤 종교신앙(宗教信仰)도 성립초기(成立初期)

에 있어 합리(合理) 과학(科學) 논리(論理) 합법(合法)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이두현(李杜鉉), 장주근외(張籌根外) ; 1969, 5~8)

사회문화적(社會文化的) 관점(觀點)에서 볼 때 민중신앙(民衆信仰)은 서민(庶民)의 생활(生活)과 사회구조(社會構造)속에서 잉태(孕胎)되고 합의(合議)된 약속(約束)이고 슬기이다. 이는 마을민 모두가 하나되어 마을의 안녕(安寧)과 소원(所願)을 비는 공동체(共同體) 제의(祭儀)로서 부여(扶餘), 예(濊), 마한(馬韓)등 고대(古代) 부족국가(部族國家) 이래의 정치(政治), 사회(社會), 문화(文化), 역사(歷史)의 총화(總和)이다.(이종철(李鐘哲), 1971, 94~95)

신목(神木), 당(堂)집 선돌 집대 벽수 적석단(積石壇)(서낭당, 塔, 水口막이)등이 복합(複合)되어 있는 마을 공동체(共同體) 신앙(信仰)은 농어산촌(農漁山村) 주민(住民)들의 기본적(基本的) 욕구(欲求)를 반영한 자연발생적(自然發生的) 종교(宗教)이다. 동신(洞神) 문화(文化)의 운반계층(運搬階層)은 대농(大農)의 상층(上層) 지배계급(支配階級) 생산자(生産者)가 아니고 소어농(小漁農) 하층(下層) 피지배계급(被支配階級) 생산수단(生産手段)이었던 상민(常民), 빈민(貧民)이 중심(中心)이다. 이들은 불교(佛敎), 유교(儒敎), 도교(道敎), 기독교(基督敎)에 귀의(歸依)하기보다는 자연물(自然物) 신앙(信仰)이나 무교(巫敎)에 사회화(社會化) 문화화(文化化)되어 있고, 무학(無學)이거나 한글해독(解讀), 의무교육(義務敎育) 수준(水準)의 60대(代) 전후(前後) 男·女性 노인(老人)이거나 50대(代)의 토착농어민(土着農漁民)들이다.

이들의 토속신앙(土俗信仰)은 3000년 이상의 긴 역사와 고대인(古代人)의 영향력(影響力)있는 종교적(宗敎的) 분포(分布)를 가졌다. 그럼에도 예측할 수 없는 생활(生活)에 필요(必要)한 절실(切實)한 기원(祈願)과 기구(祈求)의 바람, 가변적(可變的) 교리(敎理)가 있을 뿐 뚜렷한 교조(敎祖)나 교단조직(敎團組織)도 없다. 농어민(農漁民)들은 자연신앙(自然神仰), 무교(巫敎), 기타종교(其他宗敎)의 필요(必要)한 교리(敎理)나 의식(儀式)을 빌어 일시적(一時的), 수시적(隨時的), 계절적(季節的) 임의교단(任意敎團)을 운영(運營)하였다. 당산제(堂山祭)는 동회(洞會), 두레, 품앗이(김택규(金宅圭), 1985, 363~364) 계(契), 말다니기(천진기(千鎭基), 1989,35~50)의 기능처럼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의 응집력을 강화시켜 주었다.

대부분이 서민계층(庶民階層)인 농어민(農漁民)들은 ‘신앙(信仰)과 놀이’가 응집된 마을제(祭)를 통하여 정신적 위안과 지연집단(地緣集團)으로서 일체감(一體感)을 다져갔다. 의사결정(意思決定)과 집행(執行)에서 소외(疎外)된 피지배(被支配) 농민(農民)이었지만 당산제(堂山祭), 두레, 품앗이 등을 통(通)한 신념적(信念的) 결속(結束)은 임진(壬辰), 병자(丙子) 양난(兩難) 시기(時期)에 집약(集約)된 민중의지(民衆意志)를 발휘하여 민주대장정(民主大長征)의 실천적(實踐的) 행동(行動)으로서 의병(義兵), 민란(民亂), 독립운동(獨立運動)의 도화선(導火線)에 불을 당기기도 하였다.(임재현(林在海), 주장현, 황루시(皇縷詩), 윤승용(尹承容), 정승모(鄭勝謨)의 글 1989. 5~79)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신앙의 대상인 당산입석(堂山立石)과 당산남근석(堂山男根石)에 대한 밝혀진 내용은 적을 뿐 아니라 소홀이 취급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약 3000년 이상의 기원(起源)을 가진 민중신앙(民衆信仰)으로서 신성시(新聖視)된 남근석(男根石)과 선돌(당산(堂山))이 어떠한 형태변화(形態變化)와 양식변천(樣式變遷)을 하였고 이에 따른 신앙의식(信仰儀式)과 사회문화적(社會文化的) 의미(意味)는 어떠한 것이었나를 밝히려 한다.

여기에 원용(援用)된 자료(資料)들은 그간 선학(先學)들의 조사보고(調查報告)와 연구업적(研究業績) 및 필자(筆者)의 1984년에서 1988년까지의 간헐적인 현지조사(現地調査) 자료(資料)들이다.

전북(全北)은 “민속(民俗)의 보고(報告)”라 예기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기층문화(基層文化)에 대한 연구(研究)나 학자(學者)들의 작업(作業)은 너무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소수(小數)의 연구가(研究家)에 의(依)한 부분적인 당산(堂山)선들의 현존사례(現存事例), 민속학자(民俗學者)에 의한 신앙의례연구(信仰儀禮研究), 현지보고(現地觀察報告), 군단위(郡單位)의 지표조사(地表調査)등 기초연구(基礎研究)가 있었을 뿐이다.

전북지역(全北地域) 당산입석(堂山立石)과 당산남근석(堂山男根石)에 관한 조사연구(調查研究)는 김태곤(金泰坤)의 민간신앙(民間信仰)(1971, 100~113) 무속도록(巫俗圖錄)(1982, 118~119), 박순호(朴順浩)의 전북(全北地方) 성기신앙(性器信仰)에 대하여(1975, 89~90) 이종철(李鐘哲)의 장승신앙에 관한 연구(1982, 36~37) 한국의 성신앙(性信仰) 현지조사(現地調査)(1984, 32~37), 정읍원(井邑元) 백암(白岩) 당산제(堂山祭) 고찰(考察)(1988, 35~51), 전북(全北大學校) 박물관(博物館)의 고창지방(高敞地方) 지표조사(地表調査)(1984, 127~146) 김제지방(金堤地方) 지표조사(地表調査)(1985, 135~144) 남원지방(南原地方) 지표조사(地表調査)(1987, 128~158) 원광대학교(圓光大學校) 박물관(博物館) 부안지방(扶安地方) 지표조사(地表調査)(1984, 63~95) 전남향토문화개발협의회(全南鄕土文化開發協議會)의 고창성송면(高敞星松面) 지표조사(地表調査)(1984, 46~54) 한규량(韓圭亮)의 한국선들의 기능변천 연구(1984, 275~322) 송화섭(宋華燮)의 (정읍원 백암)井邑元白岩 당제(堂祭)(1986, 249~272) 박현국(朴炫國)의 정읍지역당산제(井邑地域堂山祭)와 설화(說話)의 연구(研究)(1987, 85~126) 등의 연구(研究)가 있다.

필자(筆者)의 현지조사(現地調査)는 현지에 오래 머무르며 제보자(提報者)와 직접 만나고 의례에 참여한 현장조사와는 거리가 먼 주마간산격(走馬看山格)의 현지 예(現地例)이다.

II. 현지보고(現地報告)

1. 당산 입석(堂山 立石)

당산(堂山)은 마한(馬韓) 고토(故土)의 사람들이 신(神)이 사는 곳, 신(神)이 내리는 곳, 신체(神體)로 생각하는 당산신목(堂山神木)(괴목·느티나무), 당(堂)집, 선돌, 적석단(積石壇), 짐대, 벽수(장승)등의 수호신체(守護神體)와 신(神)에 제사(祭祀)하는 신역(神域)을 일컫는다.

당산신앙(堂山信仰)은 호남(湖南) 영남지방(嶺南地方) 특(特)히 전북(全北), 전남(全南), 경남지역(慶南地域)에서 많이 불리어지는 동제(洞祭)동신(洞神) 신앙(信仰)이다. 음력 정월이나 시월에 마을민이 “당산”에 제사(祭祀)를 올려 마을의 풍년(豐年) 풍어(豐漁)와 평안(平安)을 빌고 재액(災厄)을 물리치게 해 달라고 비는 마을단위의 의례(儀禮)이다.

당산(堂山)의 구조(構造)는 자연(自然), 지역(地域), 인문(人文), 시대(時代)에 따라 바뀌어 질 수 있으나, 일반적(一般的)으로 당산(堂山)나무(神木)라 하여 소나무 느티나무 괴목(槐木) 팽나무 정자나무를 신목(神木)으로 섬기어 당산할머니·할아버지로 모시거나, 신목(神木)과 신당(神堂)(당(堂)집: 제기차(祭器庫), 조리소(調理所), 신체(神體), 신

화(神畫)를 모신 성소(聖所)이 있는 예(例)가 보편적(普遍的) 형태(形態)이다.(張籌根, 1966,179) 지역(地域)에 따라서 당산신목(堂山神木)과 당산석(堂山石) 또는 석당산(石堂山)이다 하여 입석(立石)(선돌)이 있는 예(例)와 신목(神木)과 암석(巖石)(바위), 돌을 둥그렇게 쌓은(塔) 적석단(積石壇) 신목(神木)과 흙 돌을 섞어 만든 토석원형단(土石圓形壇), 토석평단(土石平壇), 나무나 돌로 만든 짐대와 벽수등이 단독으로 있거나 공존(共存)되기도 한다.(김태곤(金泰坤): 1965, 365~366)

이 가운데 선돌과 남근석(男根石)의 신앙상징(象徵)은 변화(變化)가 있었겠지만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근대(近代)까지 이어져 오는 전승신앙물(傳承信仰物)이다. 선돌의 분포(分布)는 한반도(韓半島) 전역(全域)에 걸쳐 있으며, 그 건립연대(建立年代)는 고인돌과 동시기(同時期)로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손진태(孫晉泰) 1934, 22) 삼국(三國), 고려(高麗),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어져 생성(生成) 소멸(消滅)되었겠지만 그 재질(材質)이나 형태(形態)의 작은 변화(變化)때문에 선돌 자체(自體)만으로 시대구분(時代區分)은 어렵다. 다만 선돌이 가지는 신앙의미(信仰意味)는 시대적(時代的) 상황(狀況)이나 기원자(祈願子) 기원집단(祈願集團)의 발원내용(發願內容)에 따라 기능(技能) 신성(神性) 상징(象徵)에 있어 약간(若干)의 변화(變化)가 있었을 것이다.

살메기라 부르는 선돌은 긴 자연석주(自然石柱)나 인공(人工)을 가한 장방형(長方形) 석재(石材)를 곧추세워 땅이나 적석단(積石壇)에 묻어둔 매우 간단한 돌기둥 구조(構造)이다.(최남선(崔南善): 1927, 12)세우는 위치는 마을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다르나 마을 입구, 동제신역(洞祭域), 동내사방위(洞內四方位), 마을의 논밭, 고갯마루등에 하나, 한쌍 또는 여러곳에 세운다.

마을에 따라서 신앙(信仰)선돌은 동신(洞神)의 신체(神體)로서 삿갓(주저리)을 상부에 씌우거나, 동제후(洞祭後) 줄다리기에 사용한 줄 또는 왼쪽으로 끈 금줄(인줄)을 감아두고(웃입혀) 주위에 황토흙을 뿌린다.

마을사람들은 당산제(堂山祭)날 당산선돌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밤, 대추, 곶감, 명태, 술을 차려 놓고 동내평안(洞內平安)과 무병(無病) 풍년(豐年) 풍어(豐漁)를 빈다.

선돌의 신명(神名)은 여성(女性)은 할매 할머니담 할미바위 거북바위(龜岩) 구지바위 등으로 남성(男性)은 할배, 할아버지담, 삿갓바위(笠岩), 사모바위, 쇠뿔 미륵, 장승, 수살장군, 석불장군(石佛將軍), 장군암(將軍岩) 등으로 불린다.(한규량 : 1984, 288) 통칭으로는 선돌, 선돌, 선돌바위, 수살이, 미륵, 미륵덩이, 수구막이, 석인(石人), 입석(立石), 입암(立岩), 하당신(下堂神), 짐대들(이필영: 1988, 491) 등이다.

선돌은 때로 고인돌과 함께 존재하며 고고민속적(考古民俗的) 해석(解釋)으로는 피장자(被葬者)를 추모하고 상징했던 조상신(祖上神) 수호신(守護神)으로 여기며, 묘표(墓標)의 기능(技能)을 가진 옥천(玉川)안터의 고인돌 표시 선돌(이용조 : 1979, 63~70)이 있고, 광개토왕비,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 망주석(望柱石) 등도 선돌의 변형(變形)일 것이다.

선돌은 또한 논밭에 세우거나 논밭이 보이는 언덕 바닷가에 세워 풍농(豐農) 풍어(豐漁)를 가져다 주는 천신(天神) 경계신(境界神) 지신(地母神) 풍어신(豐漁神) 생산신(生産神)의 성격(性格)을 가진다.

선돌은 마을입구, 동제터, 마을의 사방위(四方位), 마을 허(虛)한 곳에 세워져 땅과 마을민을 지켜주는 “지킴이” “액막이” “수호신” “수구막이” 수구(水口)구(構)막이 수살(守殺) 수□(守□)의 역할을 한다.

선들에 대한 금기(禁忌)로는 함부로 만지거나 부수거나 하면 “탈”이 생기고, 원래 위치에서 옮기면 재앙(災殃)이 생기고, 넘어뜨려 땅에 묻었더니 흉작(凶作)이 되고, 다시 가져다 세우니 풍년(豐年)이 들었다는 예기가 전하여진다.

선들은 문화전화과정(文化轉化過程)에서 돌담(돌을 등글게 쌓아올린 적석단(積石壇) 꼭대기에 선들을 세운것) 집대(박호원 ; 1985, 46) 벽수(방선주(方善柱) ; 1968, 83) 미륵등으로 다양(多樣)하게 변형(變形)되기도 하고 본래의 모습을 지니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당산입석의 현지사례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유형으로 한정하였다.

- ① 김제군 월촌면 입석리 당산석(金提郡 月村面 立石里 堂山石)
- ② 김제군 죽산면 서포리 삼불입석(金提郡 竹山面 西浦里 三佛立石)
- ③ 완주군 봉동읍 무등리 입석(完州郡 鳳東邑 舞登里 立石)
- ④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 입석(扶安郡 保安面 上立石里 立石)
- ⑤ 고창군 성송면 사내리 선들당산(高敞郡 星松面 沙乃里 堂山)

① 월촌 입석(月村 立石)

김제군월촌면입석리(金提郡 月村面 立石里)에 세워진 선들이다. 이 입석(立石)은 마을의 입구에 세워져 재앙(災殃)을 막아 주는 수문신(守門神)이다 마을의 풍농(豐農) 평안(平安)을 지켜주는 수호신(守護神)의 신체(神體)로서 믿어지는 커다란 바위를 곧추세운 거석문화재(巨石文化財)의 하나다.

입석리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남녀편(男女)으로 나누어 “입석줄다리기”를 하는데 여자편(女子便)이 이겨야 그해 풍년(豐年)이 든다 믿고 있다. 줄다리기에 사용한 동아줄을 마을민들은 당산석(堂山石)에 감아두고 고을의 풍농(豐農)과 안전(安全)을 기원하는 당산제(堂山祭)를 올린다. 당산제(堂山祭)는 정월초(正月初)에 농악으로 마당밧기를 하여 가가호호를 돌면서 가정의 평안을 빈다. 이때 가정에서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줄다리기에 충당할 쌀과 돈을 추렴한다. 12일부터는 각 집마다 줄다리기에 사용할 짚을 거두어 동아줄을 끈다. 묶은 줄은 풀어서 들에서 태우고 달이 떠오르면 남녀로 나누어 줄다리기를 하고 이때 사용한 줄을 “당산석(堂山石)”에 감고 제주가 당산제(堂山祭)를 지낸다. 제후에는 음복을 하고 풍물을 잡아 즐겁게 남녀노소가 즐긴다. 입석에 감아둔 동아줄에 손을 대면 동티가 난다하여 다음제사가 있는 1년동안 손을 대지 않는다. 이 입석은 지방민속자료(地方民俗資料) 7號 4각기둥형 자연석이며 높이는 210cm 폭 62cm 두께 44cm이다.

전설(傳說)로는 백제시대(百濟時代)에 벽골제(碧骨提)를 시축(始築)한 기념물(記念物)로 세워진 것이다 전(傳)해 오며, 줄다리기시에는 정절부인(貞節夫人) 2人을 선출하여 금난사(禁亂使)라는 직명까지 주어 규율을 엄하게 다루고 있다. 한다.(전북대(全北大) ; 1985, 136)

②삼불암 입석(三佛岩 立石)

김제군 죽산면 서포리(金提郡 竹山面 西浦里) 113-9번지(番地)에 있는 선들이다. 삼불암(三佛岩)은 동지강(東津江) 하구의 북안(北岸)에 있는 불당부락(佛堂部落)의 동편 끝에 자리잡고 있다. 이 암자(庵子)의 건립(建立)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얽혀 있다.

오랜 옛날부터 이 마을에는 부처님이 있었다. 마을 어민들은 출항할 때 으레히 부처님에게 공양을 드리고 나가는 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굳어졌다. 그런데 언젠가 해일(海

溢)로 이 부처님이 매몰되어 버렸다. 그 후 무인년(戊寅年)(이 무인년(戊寅年)이 어느해 인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방목리(方木里)에 사는 정진섭(鄭進燮)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한 채 마을 앞 연못가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 속에서 한 부처님이 나타나 말하기를 “연못의 물을 퍼내면 반드시 3위(位)의 석불(石佛)이 나올 것이니 방포(方湫)의 남쪽에 있는 빈터에 불당(佛堂)을 세우고 이를 안치(安置)하라. 그러면 소원 성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꿈이 그 후에도 계속 2일간이다 그에게 나타나게 되자 무자(無子)이던 정씨(鄭氏)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 연못의 물을 퍼냈다. 그러자 과연 3위(位)의 불상(佛像)이 나타났으므로 불당(佛堂)을 짓고 이를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다.(다만 현재의 불당(佛堂) 건물(建物)의 1959년에 건립된 것이다.)

위와 같은 전설에 연유해서인지 지금도 득자(得子)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삼불암(三佛岩)의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린다. 또 해마다 삼월 삼진날 동진강(東津江) 하구에서 지내는 수륙제(水陸祭)도 그 준비를 이곳에서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삼불암(三佛岩)에 안치되어 있는 3구(軀)의 석불상(石佛像)은 인공(人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길쭉한 자연석을 세워 놓고 그 위에 등근 돌을 올려 놓았을 뿐이다. 물론 등근 돌은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암자(庵子)를 관리하고 있는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세부처 중 가운데가 아버지부처, 왼쪽이 어머니부처, 오른쪽이 아들 부처라고 한다. 그 높이는 각각 75cm 70cm 75cm이다.(전북대(全北大) ;1985, 45~46)

③ 무등리 입석(舞登里 立石)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完州郡 鳳東邑 堤內內리) 무등마을 어귀의 발가운데 서 있는 선들이다. 이 입석은 자연 화강암에 약간의 인공을 가하여 장방형으로 만들고 작은돌로 기초를 다져 그 위에 세운 것이다.

입석은 초기에 지석묘(支石墓)와 함께 거석문화(巨石文化)를 이루어 조상신(祖上神), 묘역수호(墓域守護), 경계표시(境界標示), 풍요기원(豐饒祈願) 등의 기능을 가졌을 것이다. 또한 마을앞 당산(堂山)나무와 함께 마을입구에 세워져 수호신으로서 신앙(信仰)의 대상이 되었으며, 자식을 바라는 기자석, 재액을 막아주는 방액석(防厄石) 등의 역할도 하였다.

이 입석신(立石神)에 대한 전설로는 마을에 굶은 일이 있을 때 여기에 싹줄(금줄)을 치고 제사를 지냈으며, 함부로 옮긴다든지 조금이라도 훼손을 가하면 벼락이 떨어져 죽는다 너진(雷震)은 말이 전해 온다.

입석(立石)의 크기는 지하에 묻힌 60~90cm를 제외하고도 높이 2m, 폭 1.5m, 두께 30cm이다. 후세에 입석(立石)의 한쪽면을 깎아 불암(佛岩), 남무아미타불(南舞阿彌陀佛)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라 글씨를 새겨 민속신앙(民俗信仰)과 불교가 만나고 있는 지방 민속자료(地方民俗資料)3號 유적이다.(전북도(全北道)) ; 1977, 448~449)

④ 보안마을 입석(保安마을 立石)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扶安郡 保安面 上立石里) 35번지에 세워진 선들이다. 이 입석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이 담긴 전설이 전해지는 지방 민속자료6호이다. 옛날 고려시대에 이 마을에는 인색하기로 소문난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한다. 이 고약한 부자에게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부자와는 달리 마음씨가 곱고 착하여 마을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전설에 의하

면 고려시대에 하루는 한 도승(道僧)이 시주를 구하러 이 집에 들렀는데 고약한 부자는 도승의 바랑속에 흙과 뒤엄을 넣어 내쫓는 것을 보고 며느리는 몰래 금한량(쌀한말)을 선뜻 내어주는 것이었다. 도승은 고맙게 생각하고 그 여인에게 그를 따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곧 그집이 못(池)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런데 그 여인은 도승을 따라 가다가 가족과 재산을 잊지 못하여 뒤를 돌아보자 여인은 그 자리에서 곧장 선돌이 되었고 시가(媿家)는 큰 연못이 되었다. 전하여진다. 입석의 높이는 2.64m 폭은 1.66m이며, 불상이 음각되어 있다.

이 유적은 홍수전설, 장자못전설, 권선징악(勸善懲惡)의 교훈(教訓), 토착신앙(土着信仰)과 불교(佛敎)가 만나는 선각불(線刻佛)의 신앙(信仰)전돌이다.(원광대(圓光大) ; 1984, 81~82)

⑤사내리 입석(沙乃里 立石)

고창군 성송면 사내리(高敞郡 星松面 沙乃里) 마을앞 길가에 있는 사기의 선돌이다. 마을 중앙 북편(北便)의 아버지당(堂)과 남쪽의 어머니당(堂)은 선돌당산(堂山) 상부에 돌을 올려 놓아 갓관(冠), 립(笠)을 쓰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 마을은 풍수 지리설에 따라 새날(鳥飛里) 새나지 시내리 초지(草枝), 초천(草川)이라 부른다.

당산(堂山) 제일(祭日)은 정월(正月) 상원(上元)이지만 마을에 부정(不淨)이나 상고(喪故)·산고(産苦)가 있을때 二月 초하루에 지낸다. 제주(祭主) 선정(選定)은 정월(正月) 초오일(初五日)에 마을 총회에서 마녀, 생기복덕(生氣福德)하고 가내(家內) 상고(喪故)나 태기(胎氣)가 없어야 한다. 제주(祭主)는 목욕제계(沐浴齊戒)하고 부부동침(夫婦同寢)을 금(禁)하며 제관(祭官)은 화주(化主)로서 제물(祭物)을 준비한다. 제기(祭器)는 매년 고창(高敞) 시장에서 새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제주(祭主)가 제후(祭後)에는 일상용으로 사용한다.

제물(祭物)은 육물(肉物)을 금(禁)하고 주(酒), 과(果), 포(脯), 병(餅), 탕(蕩)을 마을 앞 별정막(別井幕)에 준비 한 후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당(堂)의 순서로 강신(降神), 잔(獻盞), 비손, 축원(祝願), 헌찬(獻饌), 소지(燒紙), 음복(飲福)을 한다. 곱감은 마을 인구수(人口數)대로 사서 전원(全員)이 나누어 먹고 쌀과 누룩을 발효상태로 익힌 술을 나누어 먹는다. 제후(祭後) 굿물을 치고 화톳불을 피워 잡귀를 쫓기도 했다. 입석(立石)당산(堂山)에는 흰배와 백지(白紙), 원새끼 금줄을 두루고 풍년과 기자(祈子)를 빌었다.

제비(祭費)는 마을앞 공동논의 수확과 집집에 쌀 3되를 할당하여 모으고 여유있는 사람의 회사금으로 공동기금을 확보한다. 현재(現在) 마을은 36戶 198명이 거주하며 진주강(晋州江) 20호 광산(光山) 이(李) 7호 여주(麗州), 전주(全州) 이씨(李氏) 등이 산다. 당산(堂山)은 마을앞 약 50m 간격으로 동향(東向)한 4기(基)의 선돌로 마을 북쪽에 아버지당(堂), 아들당(堂), 남쪽에 어머니당(堂), 며느리당(堂)이 있다. 아버지당산(堂山)은 높이 160cm 둘레 128cm 갓둘레 173cm이고 어머니 당산(堂山)은 높이 124cm 둘레 115cm 갓둘레 257cm 이며 아들과 며느리 당산(堂山)은 갓을 쓰지 않았다.(향문회(鄉文會) ; 1984, 46~47)

이밖에 ①김제군 부량면 태평리(金提郡 扶梁面 太坪里) 대양마을 당산제(堂山祭)의 할머니, 할아버지 당산석(堂山石), ②봉남면 종덕리 종정(鳳南面 從德里 從政)마을의 하마괴(下馬槐)(리정표(里程標), 종정문주(從政門柱)로 불리는) 입석(立石), ③봉남면 내광리

(鳳南面 內光里) 내주(內注)마을 당산(堂山)나무 아래 당산석(堂山石)이 있다.

고창군(高敞郡)에는 ④고창읍(高敞邑) 수월(水月)마을의 당산(堂山)입석(立石), ⑤고수면 상평리(古水面 上坪里) 신평(新平)마을 ⑥오괴정(五槐亭)마을 당산(堂山)입석(立石), ⑦고수면 황산리(古水面 皇山里) 평촌(平村)마을(에기터) 당산(堂山)입석(立石), ⑧고수면 부곡리(古水面 芙谷) 충산마을 堂山(立石) ⑨무장면 성내리(茂長面 城內里) 성내(城內)마을 진무루(鎭茂樓)옆 堂山(立石), ⑩해리면 송산리(海里面 松山里) 임해(臨海)마을 堂山(立石) ⑪성송면 사내리(星松面 沙乃里) 사내(沙乃)마을에 돌을 엮은 당산(堂山)입석(立石), ⑫부안면 상등리(富安面 上燈里) 국고개 마을 堂山(立石) ⑬흥덕면 사포리(興德面 沙浦里) 사포(沙浦)마을 돌당산(堂山)과 짐대(現無)가 있다. ⑭정읍군(井邑郡)에는 북면 화해리 짐대(北面 花海里 祭陰臺), ⑮정읍군 정주읍 장명리(井邑郡 井州邑 長明里) 깃대백이, ⑯익산군(益山郡)에는 왕궁면 왕궁리쌍입석(王宮面 王宮里 雙立石), ⑰춘포면 쌍정리 입석(春浦面 雙亭里 立石), ⑱임실군(任實郡)에는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쌍립석(任實郡 三溪面 德溪里 雙立石) 등이 보고(報告) 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上記) 보고(報告)한 5개소(個所)의 현지(現地) 사례(事例)와 당산(堂山) 할아버지입석(立石), 할머니 입석(立石), 선돌 짐대라 부르는 18개소(個所)의 유적지(遺蹟紙)는 민중신앙(民衆信仰)의 성표(聖標)로서 전문가에 의한 계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전북(全北)전체가 망라된 당산입석(堂山立石)의 조사(調査)가 시급(時急)히 이루어져 기층신앙(基層信仰)의 분포(分布), 유형(類型), 구조(構造)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2. 당산 남근석(堂山 男根石)

남근석(男根石)은 민간에서 전승되어 온 성숭배(性崇拜) 신앙물이다. 남자의 생식기(生殖器)를 인위적으로 조각하여 세우거나 유사한 형태의 자연암석을 대상으로 하여 기자(祈子)나 풍년(豐年), 풍어, 자손만복 등을 기원하고, 질병이나 악신(惡神)으로부터 자신과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는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인 민족고유신앙의 하나이다.(김태곤(金泰坤), 1971)

이러한 남근숭배(男根崇拜) 신앙은 인류의 선사시대부터 남성기(男性器)가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신비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원초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어, 자손번성이나 종족보존, 그리고 풍부한 생산력의 기원, 악령(惡靈)의 추방을 위해 숭배되고 신앙시되었다.

남근석이라 할 때 그 형태는 대개 입석(立石)에다 성적(性的) 의미를 부여한 게 가장 많고, 때로는 거기에 조각을 가미하여 남근(男根)과 유사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밖 여성기(女星旗) 형태의 암혈(巖穴)이나 암석(巖石)과 마주하는 곳에 자연암석 상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한국의 성신앙 현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120여개소의 성기신앙유적이 확인되었다. 고고학적(考古學的)인 자료로 청동기시대의 경남 울주(蔚州) 암각인물화(岩刻人物畫), 신라 토우(土偶)와 백사공토기의 남근(男根), 안암지 출토 목제남근 등 신라시대와 통일신라 그리고 조선시대 순창(淳昌)의 남근석(男根石)등 2000년의 역사에 걸쳐 있다.(이종철(李種哲), 1984)

남근석(男根石)만으로 한정지워 볼 때 불리는 명칭은 성기명(性器名)을 그대로 차용해서 붙인 자지바위, 좃바위, 남근석(男根), 양석(陽石), 양물(陽物) 등이 있고, 은유적 표

현을 써서 돛대바위, 삿갓바위, 이밖에 미륵바위, 충각바위, 아들바위, 말바위, 장수바위, 소꿉·말꿉바위, 기자석(祈子石) 등 그 수를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모두가 남성성기와 관련된 이름들이다.

남근석의 위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통일성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개 입석(立石) 형태일 경우 마을입구나 앞에 세워져 마을제사(洞祭)시에 신체(神體)로 받들어 지거나 부녀자들이 자식 갖기를 바라는 기원의 대상처가 되기도 한다. 또한 산기슭이나 산정상 등 후미진곳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암석들도 역시 풍수신앙(風嗽信仰) 기자나 개인의 소원성취를 바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송화섭(宋華燮) ; 1986, 272)

이들 성기암(性器岩)에 대한 신앙(信仰) 형태는 앞서 지적했던 동제신(洞祭神)의 신체로서 동계 복합문화를 이루고 있다. 내면적으로 부여되는 의미는 마을의 안녕과 농사풍년, 풍어, 해운안전, 그리고 마을보호, 액운방지 등 수호신(守護神)으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로 존재할 경우 마을민들의 각별한 보호 속에 다양한 금기(禁忌)들이 수반되고 있다. 또한 이들 남근석(男根石)은 마을 풍기순화(風氣馴化)를 위해 음란(淫亂)을 막고, 청춘남녀의 순조로운 결합을 돕는다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훼손은 물론 욕설이나 방뇨(放尿), 손가락질 등을 하지 않는 등 대함에 있어 조심스런 언행이 뒤따른다. 특히 득남(得男)이나 임신을 간절히 바라는 부녀자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중요한 기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했던 다양한 의미 외에도 지석묘(支石墓)와 동반된 선사입석(先史立石), 그리고 묘전석주(墓前石柱)인 망주석(望柱石)은 남성성기의 상징적 의미로서 망자(亡者)에 대한 저승세계에서의 부활을 염원하고, 자손 만복과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세웠다는 설(說)이 있다. 이는 바로 선사시대 이래 비롯된 남근숭배사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민족 고유신앙의 일면이라 하겠다.

현지조사예(現地調査例)로 다른 남근석(男根石) 당산(堂山)은 다음의 유형(類型)으로 한정(限定)하였다.

- ① 김제군 금산면 청도리 귀신사 남근석(金堤郡 金山面 靑道里 歸信寺 男根石)
- ② 정읍군 칠보면 원백암리 남근석(井邑郡 七寶面 元白岩里 男根石)
- ③ 고창군 흥덕면 석교리 선바우(高敞郡 興德面 石橋里)
- ④ 순창군 팔덕면 산동리 남근석(淳昌郡 八德面 山東里 男根石)
- ⑤ 순창군 팔덕면 창덕리 남근석(淳昌郡 八德面 昌德里 男根石)
- ⑥ 옥구군 개정면 발산리 남근석(沃溝郡 開井面 鉢山里 男根石)
- ⑦ 남원군 송동면 송내리 당산석(南原郡 松洞面 松內里 堂山石)

① 귀신사(鬼神寺) 석수(石獸)와 남근석(男根石)

김제군 금산면 청도리(金堤郡 金山面 靑道里) 81번지 귀신사 뒤뜰에 있는 신앙유적(信仰遺蹟)이다.

불교(佛敎)와 남근숭배(男根崇拜) 신앙(信仰)이 어우러진 신앙미술품으로 앉아 있는 사자상(獅子像)의 등위에 남근석(男根石)을 올려 놓은 예술감각이 뛰어난 조각품이다.

불교(佛敎)와 무속(巫俗)이 합쳐진 귀신사(鬼神寺)의 석수와 남근(男根) 조각품은 이곳 사찰명(寺刹命)인 국신사(國信寺) 구신사(狗廝寺) 귀신사(歸信寺)의 여러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의하면 이곳 지형(地形)이 구순혈 이어서 터를

누르기 위하여 사찰(寺刹)이 세워졌다는 설과 백제왕실(百濟王室)의 내원사찰(內願寺刹)(武堂 16年 : 676年)로서 돌사자상과 남근석주(男根石柱)를 세웠다는 설이 있다.

서쪽을 향해 웅크리고 앉은 이 돌사자의 길이는 158cm이고 높이는 62cm이다. 등위 중간 부분에 우뚝 솟은 남근석(男根石)은 2단으로 아랫부분의 길이는 72cm이고 윗부분은 40cm이다.(全北大; 1985, 164)

② 전북대 칠보 남근석(七寶 男根石)

정읍군 칠보면 백암리 원백마을 (井邑郡 七寶面 白岩里 元白)입구의 기자(祈子)를 위한 남근조각(男根彫刻) 입석(立石)이다.

흰바위마을 입구 숲쟁이 서쪽 당산나무 아래 위치한 이 남근석(男根石)은 백암(白岩)마을 열두당산의 하나이며, 전에는 남근(男根)당산앞에 여근암(女根岩)이 있었다 한다. 화강석제의 네모난 기당위에 원통형의 남근형태(男根形態)를 조각(彫刻)한 이 신앙물(信仰物)은 300년전 이 마을의 자선사업가(慈善事業家)에 의하여 마을의 번영과 도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한다. 박인걸(朴仍傑)은 1676년(숙종2年) 백암리(白岩里)에서 출생(出生)하여 효행(孝行)으로 효자문(孝子門)이 내리고 벼슬을 받았으며, 사재(私財)를 들여 구절상(九節峙)과 굴상(屈峙)의 길을 닦고 태인(泰仁) 대각교(大脚橋)를 가설하고 빈민구제(貧民救濟)를 많이 하였다.

여러 형태(形態)로 된 24개의 당산은 오랜 세월동안 없어졌고 몇개의 당산만이 마을 주위에 남아 있다. 남근석(男根石)당산에는 음력 정월 초사흘날 저녁 마을민들이 모여 풍년(豐年)과 재액(災厄)을 위하여 당산제를 올린다. 자손이 없는 불임(不妊)의 여인이 백설기, 과일등을 차려 밤에 공을 드리거나 중위를 돌면서 껴안으면 생남(生男)의 효험이 있다고 한다.

“자지바위”를 해치게 되면 눈이 먼다고 하여 지금도 금줄이 감겨져 있다. 이 바위 맞은편 산에 “농바우” “민들바우”가 있는데, 그 바위를 건드리면 태인 오로리의 처녀가 바람이 난다고 한다.

남근석(男根石)이 높이는 135cm이고, 인접하여 동네입구 동서에 세워진 미륵형태의 장성당산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문신(守門神)으로 여겨지며 높이는 192cm이고 여기에 당산제날 곳을 친다.(이종철외(李種哲外) ; 1094, 32~33)

③ 홍덕 석교리(鴻德 石橋里) 선바우

고창군 홍덕면 석교리(高敞郡 興德面 石橋里) 223~5에 위치한 기자석(祈子石)이다. 마을은 홍덕면 소재지에서 2.5Km 떨어진 선암사가는 길목에 있다. 마을 남쪽에 성고부락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전에 이 바위를 보면 마치 남근처럼 보여 여자가 바람나무로 자주 넘어 쓰러졌으나 하씨(河氏)문중에서 다시 세우곤 했다 한다. 하씨(河氏)집안에서 이 바위를 위하기 시작할 때는 150년전 하정길의 증조부때부터라고 한다. 하씨(河氏)가문 종손의 대(代)가 끊길 위기에 부인들이 이 바위에 공을 들여 생남(生男)하였고 그후로 이 바위를 하씨(河氏)네가 지성으로 위해 왔다고 한다. 지금도 7월 7일 밤과 12월 14일 밤이면 미리 금줄을 치고 황토흙을 뿌리고 목욕재개하고서 3색실과, 백설기, 3색실로 제사를 지낸다. 제사 절차는 4배를 하고 소지 올리고 집안식구 이름대며 소원의 성취를 빈다고 한다. 제기는 해마다 새것을 사용하며 시간도 밤 12시 이전에 지낸다 한다. 이곳 석교리 동쪽의 상골(상등)마을의 뒷산(山)이 여자 보지 형국(음곡(陰谷))이라 이 바우를

세웠다는 전설도 있다. 재질은 자연석이고 수량은 1기(基)며 크기는 높이 148cm, 둘레 125cm 지름 38cm 이며 형태는 원통형이고 위는 약간 뾰죽하다.(이종철외(李種哲外) ; 1984, 32)

④ 산동리 남근석(山東里 男根石)

순창군 팔덕면 산동리(淳昌郡 八德面 山東里) 452 팔왕마을에 위치한 당산석(男根石)이다. 마을은 진들이 고개를 등지고 남향해 있으며 면소재지에서 걸어서 약 20분 거리고 여러 성씨(姓氏)들이 모여 살고 있다.

이 남근석(男根石)은 지방민속자료 14號로 지정되어 있다. 전설에 의하면 한 여장부가 이 돌 2개를 치마폭에 싸가다가 무거워 1개는 태촌마을에 버리고 나머지 1개를 가져와 이곳 팔왕터에 세웠다고 한다. 이 마을을 팔왕터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설씨의 시조가 되는 설씨부인이 젓이 4개이고 또 쌍둥이를 4배를 낳아서 그 자식이 모두 잘되어 8명이 모두 영달했는데 임금이 나보다 너희들이 더 낫다고 하여 8왕터라 했다 한다. 이 바위는 속칭 자지바위 혹은 남근석, 연꽃바위라고 했다.

마을에서 이 바위를 위하지 않고 전에도 위한 사람이 없었다고 전한다. 다만 이 마을에 썸이 있는데 그 썸에 젓이 부족할 때 공을 들인다. 즉, 썸 청소를 하고 바가지에 쌀을 담고 그 위에 미역, 과일, 삼색실 2조를 두르고 참기름 불을 썬고 물에 띄워두고 빌었다 한다. 효과는 백발백중이고 남근석(男根石)을 건드리면 썸의 물이 마른다 하여 썸의 물 나오는 곳이 마치 여자보지 모양이라 하여 정월 14일 밤에 공을 들인다. 이 마을은 남근석과 썸의 사이에 있어 자식(아들)없는 자가 없고 전시에도 무척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있다.

옛날엔 남근석(男根石)에 금줄치고 제도 지내고 했다 한다. 그러나 그 기억을 하는 사람이 없고 듣건데 정월 보름 풍물치고 했다는 것 같다.

재질은 화강석이고 수량은 1기(基)이며 크기는 높이 188cm, 둘레 147cm이고 형태는 원통형의 남근 모양으로 정교한 조각을 했고 연잎을 감싼 듯하다. 꽃심 모양의 무늬가 하단에 조각되어 있다.(이종철외(李種哲外) ; 1984, 35~36)

⑤ 창덕리 남근석(昌德里 男根石)

순창군 팔덕면 창덕리(淳昌郡 八德面 昌德里) 161 태촌마을 산기슭에 위치한 당산석(堂山石)이다. 순창 읍내에서 강천사쪽으로 버스를 타고 약 10분 간뒤 내려서 약 30분을 도보로 가면 태촌마을에 이른다. 이 태촌마을에서 약 1.5Km 동남쪽에 남근석(男根石)이 있으며 남원윤씨(尹氏)가 집단 거주한다.

전설에 의하면 500년전쯤에 태촌마을에 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신분으로는 결혼이나 성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판하여 남근석(男根石)을 조각하였다고 한다.

이 바위를 마을에서는 “미륵집”이라고 부른다. 돌을 집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본시 이 바위를 보호하기 위한 초가집을 짓고 그 안에 미륵을 모셨기에 그렇다고 한다. 이 미륵집을 모시는 조봉순 할머니는 지금도 음력 정월 14일밤 7~8시 사이에 제사를 꼭 지낸다고 한다. 제수로는 미역자반, 백시루떡(1되), 삼색실과, 꼬막, 유과 등을 놓고 종이등을 1개 켜고 10원짜리 동전등을 놓고 큰절을 올리고 빈다. 조씨(氏) 할머니는 자식이 없어 100일 공을 드리고 나니 어느날 천둥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잉태하여 지금 52세인 윤재복씨를 낳았다고 한다. 지금도 금줄을 두르고 며느리를 시켜 제를 지내도록 한다.

만일 타(他)집안이 위하면 그집에 해를 입는다 하여 이 집에서만 지내고 있다. 1년 12달 소원 성취를 바랍니다 하고 집식구 이름 부르고 절에서 빌듯이 빈다.

재질은 화강석이고 수량은 1기(基)며 크기는 높이 165cm, 둘레 150cm이고 형태는 원통형의 남근(男根), 발기시 혈관과도 같고 혹은 연잎인 것도 같은 문양을 양각했다.(이종철외(李鍾哲外) ; 1984, 36~37)

⑥ 발산리(鉢山里) 총각바위

옥구군 개정면 발산리(沃狗郡 開井面 鉢山里) 대방마을에 위치한 남근석(男根石)이다. 이마을에는 평강 채씨가 많이 살고 있고 마을의 새마을도로 확장시 옮겨져 지금의 위치에 있다. 이바위는 뒷산인 암메산과의 연관이 있다. 즉 평야 건너 서쪽의 삼수(三水)동(삼시동에서 해질녘에 이 산을 보면 마치 여자의 음부가 사독한 것처럼 붉게 변해 있어 이 때문에 삼시동 아낙네들이 바람이 자주 나므로 이를 누르기 위해 대방마을 입구 즉 암메산 골짜기 입구에 이 총각바위를 세웠다고 한다. 그래서 이 바위를 넘어뜨리면 삼시동 여자가 바람이 난다고 50년전 삼시동에서 7월 7일에 3색실과, 떡, 돼지머리를 차린 후 제관이 와서 제사지내고 풍물을 치고 갔다고 한다. 지금은 거의 넘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 마을에서 이 바위를 위하는 사람은 없었다.

재질은 퇴적암이고 수량은 1기(基) 크기는 높이 173cm, 둘레 180cm 이고 형태는 몸체가 직사각형이고 윗부분 약간 뾰족하다.(이종철외(李鍾哲外); 1984, 34~35)

⑦ 송내리 남근석(松內里 男根石)

남원군 송동면 송내리(南原郡 松東面 松內里) 소란마을 논에 위치한 당산석(堂山石)이다. 마을은 송동면 소재지 미처 못가 큰길 좌측으로 약 15분 가량 걸어가야 있는데 그 마을 정남방(正南方) 100m 지점 논가운데 쫓바위가 서있다.

이 바위의 기능은 마을의 음기(陰氣)를 누르기 위해 세웠다 한다. 전에는 동네 당산제를 지낼 때 함께 금줄을 쳤었다 한다. 지금은 기자풍속이나 위하는 행위는 특별히 없었고 그 바위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며 바위가 기울어지면 동네에서 울너를 나가 바로 세우곤 한다.

재질은 화강석이고 수량은 1기(基)이며 크기는 높이 140cm, 둘레 175cm이고 형태는 사각형이며 인공의 흔적은 없다.(李鍾哲외 ; 1984, 34~35)

Ⅲ. 맺는말

1. 당산입석·남근석 고(堂山立石·男根石 考)

당산입석(堂山立石)과 남근석(男根石)에 감아둔 원새끼 금줄과 줄다리기줄의 당산(堂山)웃입허기는 농업사회(農業史會)에서 가장 중요하고 다용도(多用途)로 쓰인 짚의 신통(神供) 헌납(獻納)이고 남녀성결합(男女性結合)의 상징된 풍농기원(豐農祈願)과 인간(人間)과 신(神)의 성적교감(性的交感)에 의(依)한 풍요(豐饒) 풍년(豐年) 풍어(豐漁) 풍수비보(風水裨補) 자손발복(子孫發福)의 감염주술적(感染呪術的)(Contagious magic) 표현(表現)의 고대제의(古代祭儀)이다.(이종철(李鍾哲) ; 1985, 150~153)

전북지역(全北地域)의 선돌당산(堂山)은 월촌리(月村里)선돌마냥 마을의 수문신(守門

神) 수호신(守護神)의 신체(神體)로 신앙(信仰)되며 당산제후(堂山祭後) 줄다리기에 사용한 동아줄을 감아둔 형체가 있다. 이는 줄다리기에서 남녀편(男女便)의 주술적(呪術的) 성행위(性行爲), 동아줄이 상징하는 용신신앙(龍神信仰) 수신신앙(水神信仰)과 연관된 풍농기원(豐農祈願) 의례(儀禮)이다.

사내리(沙內里) 입석(立石)은 마을의 北쪽과 南쪽에 장방형(長方形)의 돌을 곧추세운 형태의 당산(堂山)들이다. 선들중 아버지와 어머니선들의 상부에 덮개돌을 올려놓아 갓을 씌우고 당산(堂山)에 흰배와 백지(白紙) 실타래 농복어 원새끼금줄을 둘러 풍년(豐年)과 마을의 비보(裨補), 기자(祈子)를 빌었다. 이는 당산(堂山)선들과 폐백이 달린 인줄, 미륵신앙 관음보살사상(觀音菩薩思想)의 편린(片鱗)이 엮보이는 유물(遺物)이다.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鎭安郡 鎭安邑 物谷里) 종평(宗坪)마을이나 상전면 월평리(上田面 月坪里) (김태곤(金泰坤) ; 1982, 217~222)의 수구(水口)맥이 조탑(造塔)은 인두대(人頭大)의 돌로 적석단(積石壇)(水口塔)을 만들고 “탑” 정상부에 선들이나 거북이 모양의 돌을 올려 놓은 형태이다. “水口塔”은 마을의 화재(火災)를 막아주고, 흘러 빠져나가는 마을의 재운(財運)을 막는 “水口매기”이며 허(虛)한 곳을 지켜주는 풍수(風水裨補)와 동제(洞祭)가 습합(習合)된 신앙(信仰)이다.

서포리(西浦里) 석불(石佛)선들은 자연석(自然石)선들위에 등근돌을 올려 놓아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 의인화(擬人化)시켜 한지(漢紙) 고깔을 씌우고 불상(佛像)으로 모시고 있다. 어촌(漁村)마을의 기자석(祈子石) 수호신석(守護神石) 미륵신앙(정경희(鄭璟喜) ; 1989, 8~19)이 불교화(佛敎化)된 신앙(信仰)선들이다.

무등리(舞登里) 입석(立石)과 보안리(保安里) 입석(立石)은 거석문화(巨石文化)의 선들이 본래(本來)의 기능(技能)인 기자(祈子) 방액(防厄) 등(等)의 의미(意味)에 불교명문(佛敎銘文)이 새겨지거나, 전설(傳說)에 얽힌 민화풍(民話風)의 선각보살상(線刻菩薩像)을 선들에 습합(習合)시킨 무교(巫敎)와 불교(佛敎)의 직접적(直接的) 만남이다. (李浩官 ; 1983, 93 辛鐘遠 ; 1987, 24~29 이종철(李鐘哲) ; 1984, 517 ~525)

전북지방의(全北地方)의 남근석당산(男根石堂山)은 남원(南原) 송내리(松內里)나 옹구발산리(鉢山里)에서처럼 풍수지리상(風水地理上) 마을형국(形局)의 여근(女根)터나 음기(陰氣)를 누르기 위하여 남근형태(男根形象)의 자연석(自然石)을 마을입구나 눈에 세우고 당산제(堂山祭)때 주과포(酒果脯)를 올리고 금(禁)줄을 두르고 “풍물”과 비손을 하는 동제(洞祭)와 남근당산(男根堂山)이 만나는 형태(形態)이다.

순창 산동리 창덕리(淳昌 山東里 昌德里)의 남근당산(男根堂山)은 당산제(堂山祭)와 남근석(男根石) 정호제(井戶祭) 미륵신 기자신(祈子神)이 복합(複合)된 신앙형태(信仰形態)이나 현재(現在)는 기자고사(祈子告祀)만이 유존(遺存)된 신앙(信仰)이다.

고창 석교리(高敞 石橋里) 남근당산(男根堂山)은 원초적(原初的)인 풍속(風俗) 수호(守護堂山)은 변형(變形)되고 풍수비보(風水裨補的)인 의미(意味)와 하씨(河氏) 가문(家門)의 기자신앙(祈子信仰)이 전승(傳承)된 예(例)이다.

정읍 원백리(井邑 元白岩) 남근당산(男根堂山)은 당산제(堂山祭)의 신체(神體)인 신수(神樹) 장승 선들 거석(巨石)이 공존(共存)한 형태(形態)로 기자신앙(祈子信仰)의 대상당산(對象堂山)이고 풍수(風水)와 연관된 비보신앙물(裨補信仰物)이다. (이종철(李鐘哲) ; 1988, 43)

김제 귀신사(金提 歸信寺) 남근석(男根石)은 사찰(寺刹)의 입지선정(立地選定)에 따른 풍수비보(風水裨補) 압승물(壓勝物)로 불교(佛獸)와 남근(男根)을 조각(彫刻)하여 수용

(受容)한 양태(樣態)이다. 이밖에 남근(男根)과 불교(佛敎)가 결합(結合)된 형태(形態)는 금산사(金山寺) 노주(盧柱) 고창(高敞) 선운사(禪雲寺) 석탑(石塔) 상륜(相輪部) 남근(男根形) 조각석물(彫刻石物) 등이다.

선들과 남근석(男根石)의 양식변천(樣式變遷)은 자연현상(自然現象)으로 있는 선들 · 돌무지 · 남녀근형상(男女根形狀) 지형(地形)-마을민이 세운 선들 · 탑(塔) · 수구(水口) 박이 · 남근형태(男根形態)선들-선들 신석(信石壇) 남근석(男根石)의 神石化(황토, 속가지, 한지, 짚, 금줄, 줄다리기금줄, 供養)-조형(造形)선들(상부에 들었은 미륵, 망주석(望柱石) 빙신화(憑神化))-보살미륵상(像), 선각(線刻)선들 남근석(男根石)-불암문자(佛岩文字) · 보살미륵조각(彫刻)선들 · 불교부조각남근형태(佛敎浮彫刻男根形態)로 생문화적(生文化的) 환경(環境)에 따라 형식수용(形式受容)을 이루었을 것이다.

2. 당산신앙(堂山信仰)의 변천(變遷)과 기능(技能)

전북지방(全北地方)에서 동제(洞祭)(이두현외(李杜鉉外) ; 1969, 17~48)를 성황당, 선황당, 미륵당, 삼신당, 산신당, 제당, 산제당, 상당, 당상, 당산, 천용제 섶제, 청용당 기타 등 276개소(個所)에서 다양하게 불리어지는데 이 가운데 당산 61 당상 16개소(個所) 등 76개소(個所)나 된다. 신당(神堂)의 형태(形態)는 신목(神木)과 신당(神堂)의 형태가 139, 신목(神木)과 돌무더기 신당(神堂)이 36, 돌무더기 신당(神堂) 56 기타(其他) 106개소(個所)이고 신(神)의 성별(性別)은 남녀(男女神) 109, 남신(男神) 49, 여신(女神) 33 (전남(全南) 남녀신(男女神) 22, 남신(南神) 71, 여신(女神) 111, 경남(慶南) 남녀신(男女神) 43, 남신(男神) 103, 여신(女神) 236)신상(神像)은 위패(位牌) 40, 신도(神圖) 12, 기타(其他) 형태(形態) 216 제의식(祭儀式)은 무교(巫敎) 88, 유교(儒敎) 60, 불교(佛敎) 2개소(個所)이며 제관(祭官)은 1인 61, 2인 40, 3인 15, 4인 이상 96개소(個所)이다.

제(祭)의 일시(日時)는 음력(陰曆) 정월초(正月初) 48, 보름 97, 十月 36, 택일기타(擇日其他)가 103개소(個所)이고 제후(祭後)에는 총회(總會) 69, 별신굿 17, 농악(農樂) 23, 제(祭)의 비용(費用)은 성미(誠米)할당 128, 동전담해(洞田沓海) 56, 계(契)와 기타 94개소(個所)등이 보고(報告)되었다.

당산(堂山)과 비슷하게 쓰이는 용어(用語)로는 당상(堂上), 산당(山堂), 상당(上堂), 원(元堂), 도당(都堂), 당(堂) 서낭당과 지명(地名)으로는 당피, 당머니, 당고개, 당마당, 당골, 당안, 당전, 당갯, 당뿔, 서낭고개 등이 있다.

당(堂)에 대한 제사(祭祀)는 당제(堂祭), 당산제(堂山祭), 당산(堂山)굿, 당고사(堂告祀), 당사(當社), 당(堂)맞이굿, 당(堂)굿, 신(神)맞이굿, 천룡제, 철룡제, 도당(都堂)굿 서낭굿 등으로 불리어진다.

제사장(祭司長)과 제관신도(祭官信徒)는 원노(園奴), 촌노(村老), 고노(古老), 영좌(領座), 당주(堂主), 당산주(堂山主), 도가(都家), 화주(化主) 등 지역주민중심(中心)의 유교적(儒敎的) 마을민(民) 제관(祭官)과 천군(天君), 주무(主務), 도무(都巫), 당골, 무녀(巫女)등의 무교(巫敎) 전문사제(專門司祭)와 신자(信者)인 당산(堂山)굿패와 마을민으로 구성된다.

지터(제터) 또는 당산터에는 터를 지키는 당산신(堂山神) 서낭신(神)으로서 소나무, 피목나무, 은행나무, 감나무등의 신목(神木)이나 숲(숲쟁이)과 수구막이 선들, 당산돌탑인 조산(造山), 조탑(造塔), 돌산, 탑거리, 누석단, 신(神)내림대(神竿)인 목(木) · 석간(石

竿)짐대, 거릿대, 석단(石壇), 마을지키미인 당산장승, 풍수비보(風水裨補)와 자녀발원(子女發願)의 남근당산(男根堂山) 등이 있다. 이들 당산복합신체(堂山複合神體)들은 하나 또는 두가지가 같이 있거나 세가지 이상이 군(群)을 이루어 동제신체복합(洞祭神體複合)을 이루고 있다.

신당(神堂)에는 신위(神位)를 모셔 놓거나 신체(神體)로 백지(白紙)한지(漢紙)를 걸어 두거나 무신도(巫神圖)를 모시거나 신령(神鈴), 신기(神旗), 신포(信牌), 향로(香爐), 촛대(燭臺), 신간(神竿)과 각종 제기(祭器)를 모셔 놓았다.

제의일시(祭儀日時)는 음력 정월초(正月初)에서 정월(正月)보름이 가장 많으며, 제의(祭儀)는 제상지설, 분향, 강신, 현작, 독축, 소지형식의 유식제의(儒式祭儀)와 당산(堂山)굿이 합쳐진 형태(形態)가 가장 많았고 두번째는 상차림 후 비손, 염언(念言), 치관, 등의 정숙형의 소박한 제사인 당산(堂山)굿, 산신굿, 서낭굿의 원초(原初) 형태(形態)이고 세번째는 서낭굿, 도당굿, 풍어제처럼 바닷가에서 무격사제중심(巫覡司祭中心)의 굿으로 구성(構成)된 제의(祭儀)가 있다.

제의(祭儀) 전후(前後)에는 고노(古老)나 마을민(民)이 모여 동회의(洞會議)를 열어 제관선정, 제비조달, 제의진행 등 당산(堂山)굿과 마을의 공동작업 울너, 품삯, 공동우물청소, 마을길보수 등 여러 현안(懸案)을 합의(合議)하여 조정(調整)하는 마을자치(自治)의 정치적(政治的) 기능을 가진다.(이두현(李杜鉉) ; 1984, 176)

제의시작(祭儀始作) 전후(前後)는 당산(堂山)굿을 쳐 신(神)에게 알리고 신(神)을 강림(降臨)시켜 신(神)을 맞이하고 제후(祭後)에는 당산신(堂山神)인 신목(神木), 입석(立石), 짐대에 줄다리기에 사용한 줄을 감아 당산(堂山)웃을 입히고 굿치고 놀았다. 이때 동네의 집집마다 음식상을 당산에 차려 가정의 안행낙도(安行樂道)를 개별적으로 비손하기도 한다.

제사비용(祭祀費用)은 “마당밭이”를 하여 거둔 쌀과 가가호호(家家戶戶)에서 소의 몫까지 낸 성미(誠米)와 인구전동제(人口錢洞祭)에 딸린 전답해(田畝海)의 소출(所出)로 꾸려 나간다.

당산(堂山)은 신성공간(神聖空間)의 총체적(總體的) 이름으로 신(神)이 강림(降臨)하는 상당(上堂), 중당(中堂), 하당(下堂), 신(神)을 제사(祭祀)하던 천단(天壇) 천룡단(天龍壇), 철용단, 신(神)이 머무는 신체(神體)인 신목(神木), 신당(神堂), 짐대, 벽수, 탑(塔)등의 고을맥이, 서낭신, 마을신등 복합적 성소(複合的 聖所)와 신체(神體)의 범칭(凡稱)이다.

당산(堂山)은 고대(古代)의 신성지역(神聖地域)(Sacred area, post, altar and god)과 신체(神體), 사제공간(司祭空間)의 성역(聖域)이었던 별읍(別邑), 소도(蘇塗), 솟터, 솟터, 당터, 짐대너, 참성단(塹聖壇), 천단(天壇)의 야외제천신단신역(野外祭天神壇神域)에서 시원(始原)하였으나(김영진(金榮振) ; 1985, 26) 신당건립후(神堂建立後) 옥내(屋內)에 모시는 과정(過程)에서 제천(祭天)서낭에서 당산(堂山)신으로 전위(轉位)되어 천신(天神)-산신(山神)-서낭신-조상신-마을신-고을맥이-농업신(農業神)-용수신(龍水神)-수호신(守護神)-수문신(守門神)의 복합신앙군(複合信仰群)으로 변화(變化)되었을 것이다.

당산제(堂山祭)의 시작이 깨끗한 제관(祭官)을 선정(選定)하고 신간(神竿)용신기(龍神旗), 농상기, 대기, 용당기, 턱석기, 용독기, 서낭기, 와당대)을 앞세우고 당(堂)맞이, 신(神)맞이, 신(神)내림, 의식(儀式)으로 시작하는 것은 천신(天神), 서낭신(神)의 초청의례이다. 이보형(李輔亨 ; 1989 100 ~114) 이들을 맞는 제관은 고대(古代)의 제정일치사회

(祭政一致社會)의 사제(司祭)인 천군(天君), 읍군(邑君), 장사(長師), 거사(渠師), 군장(軍葬), 신지(臣智), 단군(檀君), 당골(Tenguri), 무당(巫堂), 당(堂), 차차웅(次次雄), 제주(祭主), 제관(祭官), 헌관(獻官), 축관(祝官), 공양주(供養主), 화주(化主), 도가(都家), 공원(工員), 소임(小任), 당주(堂主), 당산주(堂山主), 물신, 마루신, 웅(雄), 마을신, 만신(萬神)으로 이어지는 제사(祭祀)와 치정(治定)의 실력자(實力者)이었을 것이다.

당산(堂山)굿은 신(神)의 강림(降臨)을 위한 비념, 기도, 염원, 신악(神樂) 등 고대적(古代的) 원초의식(原初儀式)과 신(神)과 인간(人間)의 만남인 신영(新迎) 제신(祭神), 음복(飲福) 신인공유(神人共遊)의 의식(儀式)이다. 이는 성읍국가(城邑國家)의 공동체제의(共同體祭儀)와 고대국가이래(古代國家以來)의 불교(佛敎), 유교(儒敎), 도교(道敎)의 습합(習合)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산제(堂山祭)의 신악(神樂)은 신맞이, 들당산, 마당밭이, 걸궁, 들들이, 날당산 등 풍농(豐農) 마을안녕(安寧)을 비는 당산(堂山)굿 당산풍장과 농기(農旗), 영기(令旗), 기세배(旗歲拜), 두레기 등 신영의식(新迎儀式)과 생산(生産)과 여흥음악(餘興音樂)인 질굿 음악의 두레굿 두레풍장을 잉태(孕胎)시켰다.(이보형(李輔亨) ; 1989,99) 다른 한편 당산신악(堂山神樂)은 전업(專業) 사제집단(司祭集團)에 의(依)하여 불교음악(佛敎音樂)-무(巫)굿-신(神)굿-서낭굿-풍어(豐漁)굿과 연희집단(演戲集團)인 사당패 화랭이에 의한 사당굿, 놀이패 뜰패등에 의하여 연희되는 의식(儀式)과 놀이음악(音樂)으로 분화(分化)발전(發展)하였다.

당산신앙(堂山信仰)은 원시농경사회(元始農耕社會)에서 변동(變動)의 중요한 변수(變數)였던 기후(氣候)의 예측(豫測)과 물의 통제(統制)가 가능(可能)하여지고 농업(農業)의 기계화(機械化) 영농(榮農)의 산업화(產業化) 이농급증(離農急增) 및 도시이동(都市移動), 새마을 운동(運動), 신분(身分)붕괴, 과학의학기술(科學醫學技術)의 발달(發達) 주민(住民)의 이질화(異質化)에 따른 공동체의식(共同體意識)의 소멸(消滅)로 인하여 붕괴되고 있다. 일제(日帝)의 문화말살운동(文化抹殺運動) 서구적(西歐的) 가치(價値)와 개인주의(個人主義) 굿의 미신화(迷信化)와 예수교의 대체(代替), 배타적(排他的) 교회신앙(敎會信仰), 대중문화(大衆文化) 서구편향(西歐偏向)의 T.V 연희(演戲), 일과 굿놀이가 유리된 농악(農樂)의 박제화(朱剛玄 ; 1989, 78~85)등의 흥수속에 원초적(原初的) 의미(意味)를 상실(喪失)하고 있다.(이종철(李鐘哲) ; 1987, 804)

사제자(司祭者)이고 제관(祭官)이며 당주(堂主)였던 고노(古老)의 위엄과 권위도 설자리를 잃고 적극적인 열성신자(信者)이었던 농어민(農漁民)은 빈농(貧農)과 이농(離農)악순환 속에 소극적 참여와 제의(祭儀)의 구경꾼으로 물러 앉고 당산(堂山)터에는 교회(敎會)가 들어서고 있다.

무의식(巫儀式)을 주제(主祭)하였던 무(巫)와 당골은 사제자(司祭者)(priest) 무의(巫醫)(medicine man) 예언자(豫言者)(prophet) 연희인(演戲人)(talent)의 기능(機能)을 상실(喪失)하고 신관(神官)으로서 신뢰가 줄어들고 있다.

한편 당산신앙(堂山信仰)은 이러한 의미(意味)의 소멸(消滅)에도 한국인(韓國人)의 토착종교(土着宗教)에 뿌리를 둔 신중심(神中心) 사유(思惟) 구조(構造), 기구복신앙(祈求福信仰)등 심정적(心情的) 공감(共感)과 노년층(老年層)의 자기네세대(世代)의 중단고민 전통의식(傳統儀式)의 고수(固守), 젊은 청장년(靑長年)들의 전통적(傳統的) 협동(協同)과 공동체(共同體) 제의(祭儀)의에 대한 새로운 가치(價値)와 적극적으로 인식(認識)등으로 주변적(周邊的)이지만 제의재생운동(祭儀再生運動)(revitalization of village

rities)이 일고 있다. 이는 농민(農民) 스스로가 서구적 개인주의적 사대부적 가치관에서 뛰쳐나려는 시도이다. 향토적 마을 축제는 “해볼 만한 가치”에의 회귀(回歸)이며 험벗고 착취만 당하였던 농민계층(農民階層)의 내적(內的) 성찰(省察)이 되고 대동의 틀로서 풀뿌리가 되고 있다. (정승모(鄭勝模) : 1981, 137~155)

이러한 당산(堂山)굿이 갖는 의미(意味)는 신(神)을 위한 마을민(民)들의 순수 자발적인 신앙(信仰)의 표현(表現)이며, 이웃과 마을내의 사소한 갈등과 감정을 해소(解消)하는 화해(和解)의 장(場)이 된다.

마을민(民)은 제의(祭儀)를 통하여 신인합일(神人合一)의 유대감(有待感)과 일체감(一體感), 공동체 의식(共同體 意識)과 협동(協同)의 강화(強化)를 공유한다. 당산(堂山)굿의 신명(神明)은 농어촌생활(農漁村生活)에 활력(活力)과 휴식(休息)과 기쁨을 주는 순기능(順機能)을 가지기도 한다.(김동주(金炯珠) ; 1988, 177~178)

3. 당산(堂山)굿 고(考)

당산굿이란 동제(洞祭) 가운데 그 명칭이 당제(堂祭)나 당산제(堂山祭)로 불리는 지역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제의 시작전 진행중이나 제 후에 행하는 터울림 풍장, 걸궁마당 밭이(집들이, 들들이, 뜰밭이) 서낭굿, 매구굿, 날당산, 뒷뿌리 등 농악놀이를 통틀어 말한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의례인 동제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지만 제장(祭場)이 되는 당명(堂名)과 제명(祭名)은 지역에 따라 구분이 되고 있다.

예컨대 경기·충청지방은 산신당(山神堂)·산신제(山神祭)로 강원도지방은 성황당(城隍堂)·성황제(城隍祭) 영남·호남지방은 당산(堂山)·당산제(堂山祭) 또는 당제(堂祭)로 불리는 것이 보편화된 명칭들이다. 그러나 제의 명칭이 이처럼 크게 몇가지로 구분된다 해도 당산굿이라고 하면 이는 다분히 남부지방 쪽에 좀더 가까운 인상을 받는다. 남부지방에서는 당산제와 더불어 반드시 농악이 곁들여진다 해도 과연이 아닐 정도로 농악(農樂)으로 굿을 하고, 집들이를 하고 판놀음 마을굿을 하는 등 필수적으로 등장된다.(이보형(李輔亨) ; 1989, 88) 그러기에 당산제 자체를 “당산굿친다” “당굿친다”라고 하여 제사와 굿을 엄격히 구분하여 쓰지 않고 있으며, 농악놀이 자체를 ‘매구친다, 금고친다. 풍장친다, 취군논다, 벽구논다, 굿친다’는 말과 혼용해 쓰고 있다. 그러나 마을제사와 관련이 없이 모심기와 김매기, 호미씻기, 호미걸이때 행하는 농악놀이 두레굿 두레풍장은 굿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당산굿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강원도 동해안 일대나 중부내륙지방에 널리 분포하는 마을제사가 무당(巫堂)들에 의해 주제(主祭)되는 별신굿이나 도당굿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이는 같은 동제의 성격이라고 하지만 그 규모나 주제자(主祭者), 제(祭)의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별신굿은 사제자(司祭者)가 마을민이 아닌 무녀와 무당잡단이 되며 제사형식을 굿놀이인 무희무극(巫戲巫劇)으로 풀어가고 있다. 남부지방에서 통용되는 천군사제(天君司祭)의 기능을 마을사람들이 직접 행(行)하고 굿과 제사의 음주가무(飲酒歌舞)가 합쳐진 당산굿 의미와는 그 내용면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평안황해도(平安黃海道), 동해안(東海岸)의 굿은 무당에 의해서 진행되며 내용상으로도 각기 다른 과정, 거리, 과정, 판을 거치는데 반해 당산굿은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 무과장(無科場)인 점과 마을민이 제사장(祭司長)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굿을 의례화(儀禮化)한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별신굿과는 큰 차이가 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산제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연중 가장 마을공동체 행사로서 신(神)의 가호(加護)를 비는 종교적 의례이다. 시기적으로는 정월 중에 거행되는 곳이 가장 많다. 제사준비를 위해서는 마을성원 모두가 비용을 마련하고 가장 깨끗한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하여 제찬(祭饌)을 장만하게 하거나 제당(祭堂)을 관리하고 주제(主祭)하는 일을 전담시킨다.

당산굿은 바로 이러한 마을제사의 시작을 알리거나 신을 맞아들이는 의미로서 치는 서낭굿, 신(神)맞이 신(神)내림 의미의 들당산이 있고, 제당의 잡귀잡신의 침입을 막고 또 쫓는 의미의 들들이, 뜨뵈이, 마당뵈이, 집들이 굿, 그리고 제(祭)가 끝나고 당신(堂神)을 보내면서 치는 뒷전, 뒷पुर, 날당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마을이 반드시 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대개는 제(祭)가 끝나면 마을민이 모두 참여하여 술과 음식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흥겹게 보내는 집단 오락적 농악놀이가 벌어진다.

굿의 기본구성원은 썰과리, 장고, 북, 징, 소고가 등장하여 굿패들은 머리에 고깔을 쓰고 몸에는 빨강, 노랑, 파랑(초록)의 복색(服色)을 두른다. 처음 이장대이나 마을회관 등지에서 출발하여 당산터울림 마을 공동시설물인 창고, 우물, 정자, 다리 등을 돌면서 굿을 친 다음 각 가정을 방문한다. 집안에서 치는 굿은 집들이(문, 마당, 조왕, 터주, 성주) 마당뵈이 또는 지신뵈이라 하여 마당을 돌고 샘굿, 부엌굿 등을 차례로 친다. 이렇게 시작된 굿은 2~3일 혹은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마을도 있다.

엄격한 의미(意味)에서 당산(堂山)굿, 서낭굿, 별신굿, 당굿은 모심기, 김매기, 호미씻기., 호미걸이때 농기(農旗)인 두레기 농신간(農神竿)을 앞세우고 행(行)하는 농신내리기-들들이-농신굿-판놀음-농신올리기의식의 두레풍장, 두레굿 농악(農樂)과 구별(區別)된다. 농신(農神)을 맞고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과 노동(勞動)의 피로(被勞)를 씻어주고 농사일에 활력(活力)을 넣어주는 두레농악(農樂)은 농민(農民)을 위한 생산음악(生産音樂)이다. 연희(演戲)놀이 걸립 축원풍물 중심(中心)의 솟대패 걸립패가 행(行)하는 서낭굿 문굿 문장거리리는 당산(堂山)굿과 구분(區分)되며 엄밀한 의미(意味)의 농악(農樂)은 농사पुर, 두레굿, 두레풍장이라 얘기할 수 있다.

* 본(本) 논문(論文)은 사단법인(社團法人)『한국박물관회(韓國博物館會)』의 연구비(研究費)로 지원(支援)받아 조성(造成)된 것임을 밝히며 현지조사에 도움을 주신 박물관회에 감사(感謝)를 드린다.

* 당산선돌 圖版

- ① 김제 월촌면 입석리 당산석(金堤 月村面 立石里 堂山石)(사진 1)
- ② 김제 죽산면 서포리 삼불입석(金堤 竹山面 西浦里 三佛入石) (圖 1)
- ③ 완주 봉동읍 무등리 입석(完走 鳳東邑 舞登里 立石)(사진 2)
- ④ 부안 보안면 상입석리 입석(扶安 保安面 上入石理 立石)(사진 3)
- ⑤ 고창 성송면 사내리 선돌당산(高敞 星松面 沙內里 堂山) (圖 2)
- ⑥ 진안 진안읍 물곡리 수구매이(鎭安 鎭安邑 物谷里 水口)(圖 3)

* 堂山 男根石 圖版

- ① 김제 금산면 귀신사 남근석(金提 金山面 歸信寺 男根石)(司津 1)
- ② 정읍 칠보면 원백암 남근석(井邑 七寶面 元白岩 男根石)(사진 2)
- ③ 고창 흥덕면 석교리 선바우(高敞 興德面 石橋里)(사진 3)
- ④ 순창 팔덕면 산동리 남근석(淳昌 八德面 山東里 男根石)(사진 4)
- ⑤ 순창 팔덕면 창덕리 남근석(淳昌 八德面 昌德里 男根石)(사진 5)
- ⑥ 옥구 개정면 발산리 남근석(沃溝 開井面 鉢山里 男根石)(사진 6)
- ⑦ 남원 송동면 송내리 당산석(南原 松東面 松內里 堂山石)(사진 7)

參 考 文 獻

- 李杜鉉 張籌郡 玄容駿 崔吉城, 1969 <部落祭堂> 《民俗資料調查報告書》 39號 文化財管理局
- 李鐘哲, 1971 <서도部落祭의 考察> 《文化人類學》 4輯 韓國文化人類學會
- 金宅圭, 1985 《韓國農耕歲時的 研究》 嶺南大出版部
- 千鎮基, 1989 <農村的 마을가기 慣行研究> 《嶺南大文化人類學碩士論文 嶺南大大學院
- 林在海, 朱剛玄 黃縷詩 尹承容 鄭承模, 1989 《民俗學에 있어서 民의 概念과 實體》 국립민속박물관
- 金泰坤, 1971 <民間信仰> 《全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全北便 文化財管理局
- 金泰坤, 1982 《韓國巫俗圖錄 서울輯文堂》
- 朴順浩, 1975 <全北地方 性器信仰에 對하여> 《韓國民俗學 民俗學會》
- 李鐘哲外, 1984 《韓國性信仰 現地調查》 國立光州博物館
- 李鐘哲 金三基, 1988 <井邑元白岩堂山祭考察> 《古文化》 33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 全北大, 1984 《高敞地方地表調查》 全北大學校博物館
- 全北大, 1985 《金提地方地表調查》 全北大學校博物館
- 全北大, 1987 《南原地方地表調查》 全北大學校博物館
- 圓光大, 1984 《扶安地方 地表調查》 圓光大學校博物館
- 鄉文會 1984 《高敞星松面 地表調查》 全南鄉土文化開發協議會
- 한규량, 1984 <한국선들의 기능변천연구> 《白山學報》 28號 白山學會
- 宋華燮 1986 <井邑元白岩 堂祭> 《韓國民俗學》 19輯 民俗學會
- 朴炫國 1987 <井邑地域 堂山祭와 說話의 研究> 《국어교육연구》 6輯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張籌根 1966 <韓國神堂形態考> 《民族文化研究》 1輯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 金泰坤 1965 <韓國神堂研究> 《國語國文學29輯》 한국국어국문학회
- 孫晋泰 1934 <朝鮮돌멘考> 《開關》 (孫晋泰全輯所收)
- 崔南善 1927 <巖石崇拜로서 巨石文化> 《東光》 2-1 號 (崔南善全輯所收)
- 이필영 1988 <마을공동체와 솟대신앙> 《孫寶基博士停年記念 考古人類學論叢》 知識産業社
- 이용조 1979 《大清댐水沒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書》 忠北 大學校博物館
- 朴昊遠 1985 《솟대信仰에 관한 研究》 精神文化研究員 碩士論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方善柱 1968 <韓國巨石祭儀 諸問題> 《史學研究》 20 金良善教授華甲祈念論叢 史學研究會
- 全北道廳 1977 《文化遺蹟總攬》 全羅北道廳 文化公報官室
- 金泰坤 1971 <性器信仰의 研究> 《韓國宗教》 圓光 大學校 宗教問題 研究所
- 李鐘哲 1985 <장승의 현지유형에 관한 시고> 《韓國文化人類學》 17輯 耕雲 張籌根 博士華 甲祈念論文 한국문화인류학회
- 鄭璟喜 1988 <三國時代社會와 佛經의 研究> 《韓國史 研究》 63輯 한국사연구회
- 金三龍 1983 《彌勒信仰의 研究》 동화출판공사
- 李浩官 1983 <石橋 및 幢竿支柱> 《考古美術》 158·159 韓國美術研究會
- 辛鍾遠 1987 <幢竿造營의 文化史的 背景> 《江原史學》 3輯 강원대학교 사학과
- 李鐘哲 1984 <장승과 솟대에 대한 考古民俗學的接近試考> 《尹武炳博士回甲記念論叢》
- 李杜鉉 1984 《韓國民俗學 論考學研社》 學研社
- 金榮振 1985 《韓國自然信仰研究》 清州大 人文科學研究所
- 李輔亨 1989 《노동과 굿》 학민사
- 李輔亨 1976 <神旗와 農旗> 《韓國文化人類學》 8輯 한국문화인류학회
- 朱剛玄 1989 <두레공동노동의 사적검토와 생산문화> 《노동과 굿》 학민사

- 李鐘哲 1987 <장승祭의 信仰體系> 《三佛 金元龍教授停年記念論叢》 一志社
- 鄭勝謨 1981 <마을共同體의 變化와堂굿> 《韓國文化人類學》 13輯 한국문화인류학회
- 김동주 1988 <扶安大伐里의 雙鳥竿 堂山 考察> 《全羅文化研究》 2輯 全北鄉土文化研究會
- 崔吉成 1969 <扶安성문안 堂山> 《民俗資料調查報告書》 19號 文化財管理局
- 朴順浩 1983 <전북지방장승分布> 《韓國民俗學》 16輯 민속학회
- 朴順浩 1985 <전북지방솫대고> 《韓國民俗學》 18輯 민속학회



1. 立石里 堂山石

1. 입석리 당산석(立石里 堂山石)



2. 舞登里 立石

2. 무등리 입석(舞登里 立石)



3. 上立石里 立石
3. 상입석리 입석(上立石理 立石)



1. 歸信寺 男根石
1. 귀신사 남근석(歸信寺男根石)



2. 元白岩 男根石
2. 원백암 남근석(元白岩 男根石)



3. 石橋里 선바우
3. 석교리 선바우(石橋里 선바우)



4. 山東里 男根石

4. 산동리 남근석(山東里 男根石)



5. 昌德里 男根石

5. 창덕리 남근석(昌德里 男根石)



6. 鉢山里 男根石

6. 발산리 남근석(鉢山里男根石)



7. 松内里 堂山石

7. 송내리 남근석(松内里 堂山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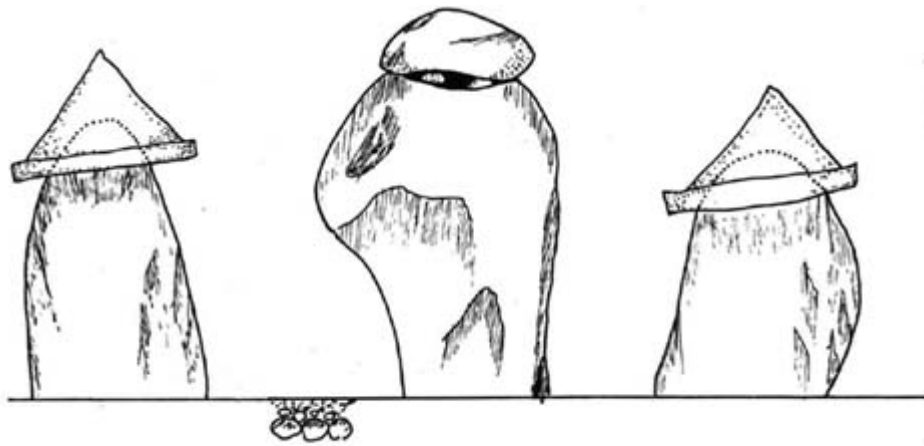


圖 1. 西浦里 三佛立石

圖1. 서포리 삼불입석(西浦里 三佛立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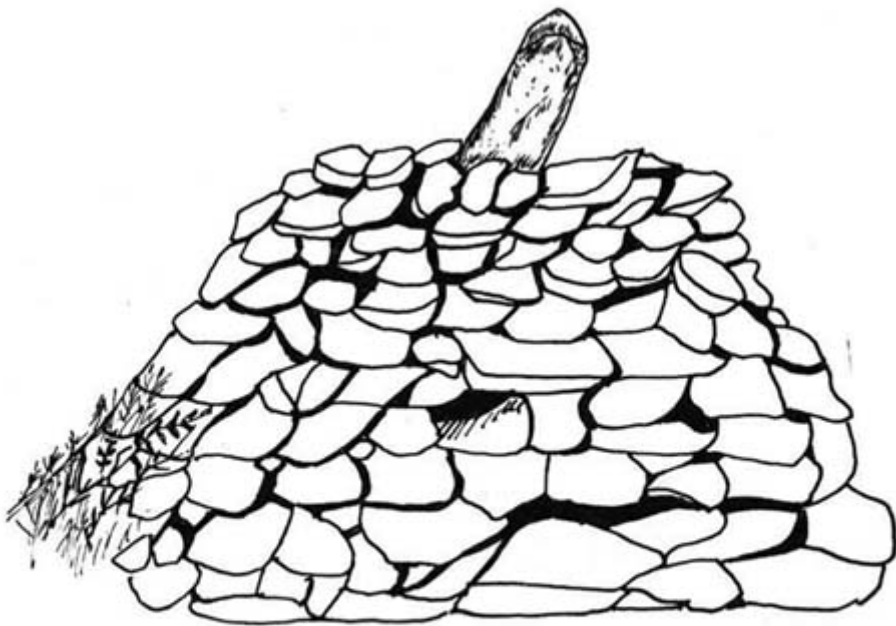


圖 2. 沙乃里 立石

圖2. 사내리 입석(沙乃里 立石)



圖 3. 物谷里 水口맥이

圖3. 물곡리 수구맥이(物谷里 水口맥이)